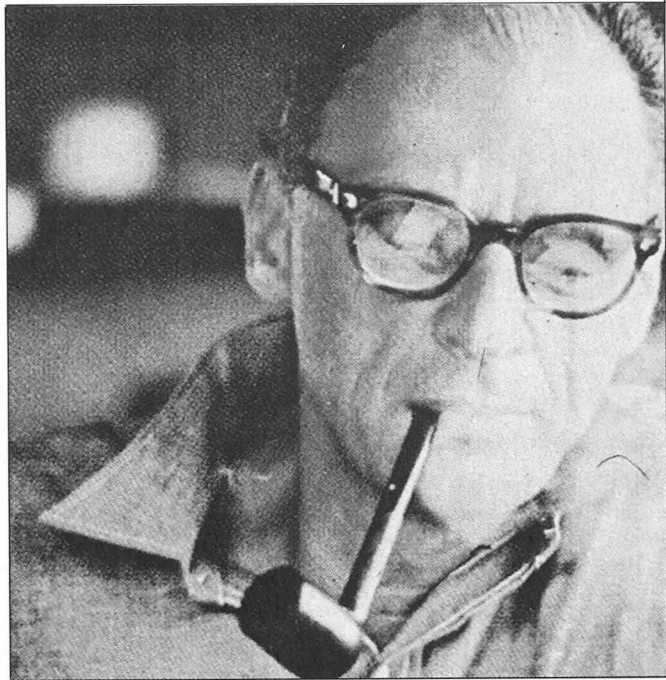


노장 희곡작가 아더 밀러의 첫 소설

《보통 소녀》 출간으로 美문단에 화제



문단생활 50여년만에 첫 소설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더 밀러.

미국의 대표적인 희곡작가 아더 밀러(80)가 문학활동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소설을 발표해 美문단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제목은 《보통 소녀》(Plain Girl)(메튜엔刊). 《세일즈맨의 죽음》등 현대연극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노장 작가의 첫 소설인데다가, 불과 51페이지에 불과한 소품이어서 이래저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뉴욕에서 재니스 세션스란 한 여성이 어느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찰스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죽음을 계기로 재니스는 지난날 찰스와의 사랑을 회상한다. 작가 밀러는 재니스의 과거를 통해 미국 중산층 지식인들의 의식세계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잔잔하게 파헤쳐 들어간다.

재니스는 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 뉴욕의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호기심 많고 반항적인 성격의 그녀는 집안의 부르주아적 분위기를 혐오, 맨해튼의 좌파 지식인들과 어울린다. 어느날 재니스는 자신이 생각만큼 미모가 아니라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곧 지식인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위트와 지성만이 무기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공산주의자인 고서 매대상 샘 핑크와의 결혼도 사랑보다는 자신의 부르주아

근성으로부터 완전결별로 평가할 만큼 이성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곧 삐걱덕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샘이 정치활동에만 빠져 가정과 아내에 소홀한 반면, 재니스는 잔잔한 행복을 원했기 때문이다.

재니스는 2차대전이 발발, 샘이 참전하게 되자 해방감을 맛볼 만큼 결혼생활에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그녀는 야간학교에 다니고 교수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샘이 돌아오자 의무감과 동정심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샘이 독일에서 한 여성과 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결별을 선언하고 만다.

재니스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다. 인류의 행복과 정의구현을 외치던 이상주의적 사회운동가 한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을 수도 있다는데 심한 괴리감을 느꼈고, 그것을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었던 것.

몇년 후 재니스는 장님 음악가 찰스를 만난다. 재니스의 새로운 연인이 장님으로 설정된 것은 흥미롭다. 눈으로 보이고 밖으로 과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만이 진정한 것임을 밀러는 이야

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과연 재니스는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개성을 새삼 깨닫고, 참된 사랑의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보통 소녀》는 평론가들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문장, 정신적인 깊이, 그리고 폭넓은 역사 인식과 시대설정 등이 대가답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재니스 등 주요 인물들의 성격 묘사도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

그러나 51페이지에 불과한 단출한 분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희곡작가의 소설가 데뷔작치고는 너무나 소품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평론가들과 독자들 대다수는 밀러의 첫 소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난 87년 회고록 《타임랜드》가 엄청난 분량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이번 소설은 대작이 될 것으로 점쳤다.

영국 《선데이타임》지의 서평자는 최근호에서 “아름답고 심오한 작품이지만 수십년에 걸친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갈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중적 인기 높은 미국의 증견소설가

미국의 증견작가 폴 오스터(48)가 영화 《스모크》와 《블루 인 더 페이스》(Blue in the Face)의 개봉을 계기로 최근 대중적 인기를 모으며 전성기를 맞고 있다. 오스터는 두 작품의 원작 및 시나리오를 맡았으며 《블루 인 더 페이스》에는 웨인 왕감독과 공동연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소설 《미스터 버티고》의 시나리오를 쓰는 한편 아홉번째 소설을 집필 중이다.

폴 오스터는 국내 독자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미국 문단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유망작가이다. 이미 소설 8권을 비롯해 시집, 에세이집, 회고록을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번역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프랑스 시집 6권을 영역, 출간하기도 했다. 91년 《뮤직 오브 찬스》(Music of

Chance)란 작품이 《펜·포크너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93년 《리바이어던》이 이탈리아 최고 권위를 지닌 메디치 문학상의 외국어문학 부문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20여개 국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최근 영국 더 타임스의 서평전문지인 《더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가 오스터를 ‘미국 최고의 창조적 작가’로 극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터에 대한 문단의 이같은 평가에 비해 대중적 인기는 그리 높지 않았다. 《딤섬》 《조이 럭 클럽》으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영화감독 웨인 왕이 90년 12월 25일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오스터의 단편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크게 감동, 영화화를 결심하고 나서도 주변사람들에게 “그런데 폴 오스터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미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오기 렌》은 뉴욕 브루클린의 한 허름한 담배가게 주인 오기 렌이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우연히 장님 흑인노파의 아들노릇을 하게 된다는 내용.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내용에 반한 왕감독은 이 소품을 바탕으로 《스모크》란 작품을 만들었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블루 인 더 페이스》는 《스모크》의 후편 격인 작품으로, 전편에서 담배가게 주인 오기 렌으로 출연한 성격과 배우 하베이 카이텔을 비롯해 젊은 영화감독 짐 자무쉬, 팜가수 마돈나, 코미디언 로잔 등 쟁쟁한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연한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서 소설가인 아내 시리 후스트베트, 딸 소피와 생활하고 있는 오스터의 작품은 생활 속의 소박한 일화를 잔잔하게 그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문학은 물론 영화계로 범위를 넓힌 그의 작품활동이 자못 기대가 된다.

눈길끄는 판금서적 경매전

지난 11월 6일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특이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

의 정식명칭은 '판공서적 자선 경매전'.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작가 및 학자 국제기구(Writers and Scholars International)'의 운영기금확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세계의 판공도서들이 대거 출품돼 도서애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WSI는 72년 창설, 세계각지의 검열실태를 감시, 고발하는 국제 기구이다. 1년에 6번씩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이란 잡지를 펴내고 있기도 하다.

경매에 출품된 책은 국적부터 무척 다양하다. 판공서적하면 우선 공산권을 떠올리기 쉽지만 영국·미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세계적으로 검열 및 판공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이번 행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선경매전의 또 다른 개최목적이기도 하다.

우선 눈길을 끄는 작품은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영국 및 미국 등 세계각국에서 외설성 때문에 판매금지 당했다. 1829년에 나온 메리셀리의 《뱀 여왕》은 신성모독을 이유로, 캐나다의 현역 중견 여성작가 마가렛 애트우드의 《웬드메이드》는 서양관 씨발이 설정이 문제가 돼 미국 초·중·고교에서 금서로 낙인 찍힌 작품.

60년대 미국의 히피바람을 타고 부상한 에리카 종의 《날으는 것이 두렵다》는 이탈리아에서 노골적 성묘사로 판매금지처분을 받았다. 공산권작품으로는 솔제니친의 《암 병동》, 파스테르나크의 《시선집》 등이 출품됐고, 인도 작가 루시디의 《악마의 시》도 경매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물론 이번엔 출품된 책들은 대부분 초판이거나 작가 및 유명 소장가의 사인이 들어간 것, 또는 지하불법출판본 등 희귀도서들이다. 체코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의 사인이 들어간 팜플릿, 영국작가 E.M. 포스터가 '채털리부인의 사랑'에 대한 정부의 검열행위를 비난한 편지 등도 다수 출품됐다.

WSI의 부국장인 필립 스펜서는 인터뷰에서 "문학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검열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공포심"이라면서, 현재도 각국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대한 억압행위가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애리>

독일의 뷔히너상 수상한 시인

옛 동독 출신의 시인 두르스 그윈바인은 33세의 나이로, 지난 10월 21일 독일 최고 권위를 지닌 문학상 중 하나인 게오르크 뷔히너 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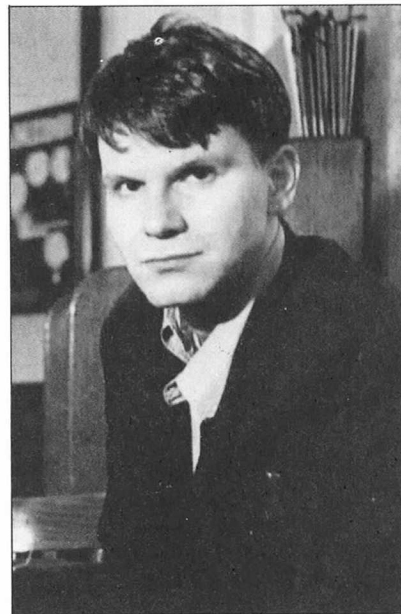
그윈바인은 이번 수상으로 역대 독일 언어권의 대문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작가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한편, 엔첸스베르거와 한트케에 이어 최연소 수상자 대열에 속하게 되었다.

1962년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그윈바인은 1985년부터 베를린에 거주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장벽이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억압과 소외를 겪었다고 술회하는 작가의 체험은 초기 작품에 반영된다. 첫 시집 《아침의 잿빛 지대》(1988)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지닌 비참한 울림소리를 노래한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그의 대표작 《아침의 잿빛》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작가가 지닌 관찰력이 돋보이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소설 형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두번째 시집 《해골구조독본》(1991)에서는 거짓으로 부(富)를 보장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형이하학적인 교훈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초기 작품에서는 미국의 모더니즘 계열 작가들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반면, 최근에는 고대문학의 권위로 회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형식면에 있어서도 두 사람간의 대담을 즐겨 사용하며, 고대로마의 시인 호라츠와 플라톤, 루크레츠는 그윈바인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된다.

《소중한 사자(死者)들에게》(1994), 《주름과 낙하》(1994) 등과 같은 그윈바인의 최근 시들에서는 신화적인 요소, 무작위로 사용된 낯선 단어, 속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혼합되어 있다. 비평가들은 바로



게오르크 뷔히너상 최연소 수상자인 시인 그윈바인.

그와 같이 난해한 요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해골구조독본》에서처럼 그윈바인의 시를 난해하게 하는 또다른 요소인 자연과학과 의학적인 서술 용어들은 3, 4년 전 이래로 영혼이라는 개념에만 결부되어 왔던 인간의 인식을 유전학과 심리학을 통해 확장시켜야 한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그윈바인은 뷔히너상 외에도 올해 페터 후헬 문학상을 수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호프만 슈탈 이래로 가장 위대한 신들의 연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시인의 등장은 이제 독일 문학계는 물론 각 언론매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성원>

인식의 과정 다룬 프랑스 철학서

1940년에 태어난 자끄 부베르스는 대중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철학자이다. 소르본느 대학에서 언어철학과 인식철학을 가르쳤던 그는 프랑스 철학의 혁신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의 하나로 평가된다. 때때로 인식론자의 범주에 분류되기도 하는 그는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철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라이프니츠, 프레게, 비트겐슈타인 등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부베르스는 이러한 철학들을 프랑스에 전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비트겐슈타인, 로베르트 무질 등 오스트리아의 사상가나 문인들에 대해 수많은 연구서와 논문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0월 6일부터 그는 다시 콜레주 드 프랑스로 돌아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 인지, 그리고 실제Langage, Perception et Réalité》의 제1권 《인지와 판단La perception et le jugement》이 최근 출간되었다.

부베르스에 따르면 엄격함은 심각함이 아니다. 따라서 엄격함에 의미를 대립시킬 이유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베르스는 풍자에 대한 열렬한 찬양자이다. 이때 풍자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그것이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기 전에 없애버리려는 의지"이다. 부베르스에 따르면 논리와 역설은 동일한 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굳어진 수사학과 이데올로기이다. 《인지와 판단》에는 모든 연극적인 것들, 의례적이고 관례화된 것들에 대한 부베르스의 거부가 나타나 있다.

《인지와 판단》은 일단 이 문제에 답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에 실린 논리를 세심하게 검토한 후 본 주제로 들어가 감각과 인지, 그리고 판단의 복잡한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요지는 "우리가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의 기초에 어떤 지적인 조작이 자리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인지과정 자체가 지적 조작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첨예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베르스는 현재 인간의 인식에 대한 연구과정에 대해 프랑스 독자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 맞추어 글을 써나갔다고 한다. 프랑스 독자의 수준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은 의욕을 지닌 한국의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은 그에게 프랑스 철학의 인식론적 전통이 지닌 깊이와 넓이를 또다른 차원에서 더불어 재공해줄 것이다. <김택>